

제 1회 아시아 채권 포럼 : 아시아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



The 1st Asian Bond Forum
Bonding Asia
Cooperation in Asian Bond Markets

아시아경제신문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이른바 '동북아 빅 3'를 축으로 인도와 중동,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까지 모두가 세계경제 성장엔진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은 최근 경제성장으로 자금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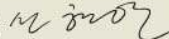
아시아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역내 자금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현실적 측면과 함께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려면 채권인프라 확충, 거래 표준화, 시장 다변화, 유통의 활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경제신문은 올해부터 '아시아 채권 포럼'을 시작합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후원하는 '제1회 아시아 채권 포럼'은 '본딩 아시아(Bonding Asia)'라는 모토 아래 한중일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부, 국제금융기구, 경제연구소,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채권전문가를 모시고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이번 행사가 아시아인이 아시아의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는 동시에 세계인이 아시아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시아 및 세계자본시장에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The 1st Asian Bond Forum

PROGRAM

- 회 의 명 The 1st Asian Bond Forum (제1회 아시아 채권 포럼)
- 주 제 Bonding Asia : Cooperation in Asian Bond Markets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일 시 2011년 5월 30일(월) 09:00 ~ 17:00
- 장 소 웨스틴 조선 호텔 1F 그랜드 볼룸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08:40 ~ 09:00	등록 (Registration)	
09:00 ~ 09:15	개회식 (Opening Ceremony)	개회사 : 신현만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축 사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09:15 ~ 10:00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연 사 : 덩이판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 리처드 돕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장 겸 서울사무소장) 구안 응 (BRIM 대표, 前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CIO))
10:00 ~ 10:30	Coffee Break	
10:30 ~ 12:00	Session 1 아시아 채권 시장의 현안과 과제 ▶ CMI, ABMI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 ▶ 아시안+3의 ABMF 투자동향	사 회 : 덩이판 부소장 발 표 : 현 석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노리타카 아카마추 (아시아개발은행 지역경제협력국 부국장) 마나부 츠루타니 (노무라종합연구소 금융컨설팅본부 상급 컨설턴트)

The 1st Asian Bond Forum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2:10 ~ 13:20	오찬 (Luncheon)	오찬사 :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
13:30 ~ 15:00	Session 2 아시아 채권시장의 유동성 및 다양성 추구 방안 ▶ 담험 본드의 전망과 과제 ▶ 이슬람 채권(수쿠크), 어떻게 볼 것인가? ▶ 물가연동채권 및 커버드 본드	사 회 :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 리수푸이 (홍콩금융관리국 금융인프라 국장) 유타카 이토 (동경거래소 동경 AIM 최고운영책임자(COO)) 워렌리 (스탠다드차타드 글로벌구조화 금융사업본부장)
15:00 ~ 15:30	Coffee Break	
15:30 ~ 17:00	Session 3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아시아 채권시장 ▶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 가능성 및 제약 요인	사 회 : 구안 응 대표 발 표 :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해외증권실장) 데이빗 린 (도이치뱅크 글로벌 금리 및 상품사업부 아시아지부장) 니라즈 세스 (블랙록 : 아시아 회사채 헤드) 세실리아 쉐 (HSBC 글로벌자산운용 아시아 · 태평양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
17:00 ~ 17:10	폐회 (Closing Ceremony)	폐회사 :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The 1st Asian Bond Forum

SPEAKER

개회식



윤 중 현 Yoon Jeung-Hyun

- 기획재정부 장관
- 금융감독위원장
-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기조연설



딩 이 판 Ding Yifan

-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
- 중국세계경제학회 부회장
-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원
- 북경외국어대학 교수
- 신화통신 에디터



리차드 돕스 Richard Dobbs

-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장 겸 서울사무소장
- 옥스퍼드대학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 방문교수



구 안 옹 Guan Ong

- BRIM(Blue Rice Investment Management) 대표
- 싱가포르국립대학교펀드 투자위원
-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ICI)
- 푸르덴셜금융그룹 글로벌 투자총괄책임자

Session 1



딩 이 판 Ding Yifan



현 석 Hyun Suk

-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 국제협력은행 ABMI 담당관



노리타카 아카마추 Noritaka Akamat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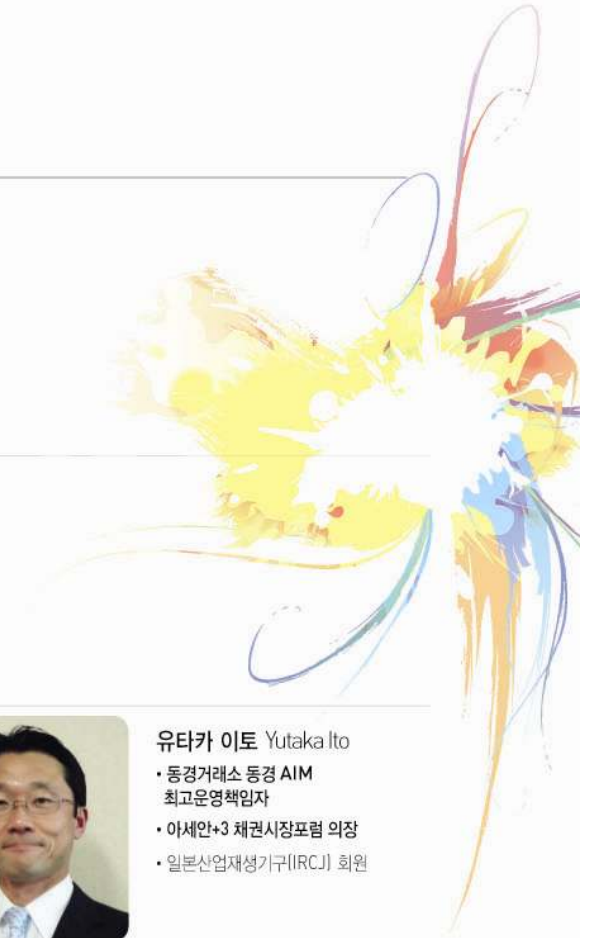
- 아시아개발은행 (ADB) 지역경제협력국 부국장
-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마나부 츠루타니 Manabu Tsurutani

- 노무라종합연구소 금융컨설턴트부 상급 컨설턴트
- (주)모미지 홀딩스 운영감사위원
- 일본정부 산하 금융제도개혁 연구회 대표

The 1st Asian Bond Forum



오찬사



전 광 우 Jun Kwang-Woo

- 국민연금 이사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 국제금융센터 소장
-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Session 2



박 재 하 Park Jae-Ha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선임연구원



리수푸이 Li Shu-Pui

- 홍콩금융관리국(HKMA) 금융인프라국장
- 체이스맨해튼은행 아시아 테크놀로지 위기관리사업 본부장
- JP모건 체이스 아시아지부장



유타카 이토 Yutaka Ito

- 동경거래소 동경 AIM 최고운영책임자
- 아세안+3 채권시장포럼 의장
- 일본산업재생기구(IRCI) 회원



워렌 리 Warren Lee

-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글로벌구조화 금융사업본부장
-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치뱅크 금융증권화 사업 담당

The 1st Asian Bond Forum

Session 3



구 안 옹 Guan Ong



안 효 준 Ahn Hyo-Joon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해외증권실장
- 홍콩 비이에이 유니온-인베스트먼트(BEA Union Investment) 시니어 펀드매니저
- 대우증권 홍콩법인 및 ANZ은행 펀드매니저
- 서울증권 해외투자팀장



데이빗 린 David Lynne

- 도이치뱅크 글로벌 금리 및 상품사업부 아시아지부장
- 아시아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 (ASIFMA) 회장



니라즈 세스 Neeraj Seth

- 블랙록 아시아 회사채 헤드
- R3 Capital Partners 시니어 부사장



세실리아 찬 Cecilia Chan

- HSBC 글로벌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
- 호주 로얄 & 선 얼라이언스보험 채권 매니저

폐 회 사



신 제 윤 Shin Je-Yoon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국장



주최 : **아시아경제신문**

후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한국은행**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ADB Asian Development Bank**

www.asiae.co.kr

문의처 : 아시아 채권 포럼 사무국 (02)557 - 2524

아시아경제 금융부/사업국 (02)2200-2071,4

아시아 본드포럼 홈페이지 : www.asiae.co.kr/event/2011bond